

## 경제

## 계열사 출자전환·오너 사재출연 등

## 채권단, 금호 고강도 구조조정 압박

## “향토 대기업 추락하나” 지역민 우려 확산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계열사 경영권에 연연하거나 대주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우건설 등 계열사 매각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매각이 성사돼도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압박이다.

주요 계열사의 출자전환을 통한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오너의 사재출연 등이 우선 거론되는 카드다. 금

호 측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지원을 하소연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향토 대기업의 추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7일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호그룹은 포함한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지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런 뜻을 금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7일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매각의 경우 금호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자베스파트너스와 TR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아직 최종 인수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우건설 주가를 고려할 때 매각이 이뤄져도 그 대금은 금호그룹이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에게 지원받은 3조5천억원을 빌불 것으로 보여 이를 모두 갚는 데 조차 어려울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따라서 금호그룹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금호산업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해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

실화되면 해당 기업은 채권단 관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독자적인 경영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해당 기업이 정상화되면 경영권을 되돌려주는 조건부 출자전환을 하거나 경영권을 보장하되 대주주의 사재출연도 요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 측은 “경영 책임은 통감하며 경영권에 집착하지 않는다”면서 “금호생명과 금호렌터카 매각은 이번 주중에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고, 대우건설 매각도 ‘현재 진행 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부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대우건설 매각 이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주 채권은행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기 기자 dok2000@ 연합뉴스

## 저신용 대출 ‘미소금융’ 지방 소외

## 11개 중 10개가 수도권

저신용·저소득층에 자활자금을 찐 이자로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재단이 수도권에만 설립돼 지방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설립됐거나 이달 중 출범 예정인 11개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중 10개가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유일하게 지방에 설립된 ‘국민미소금융’도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에 문을 열었다.

이미 개점한 미소금융재단은 우리(을지로2가), 현대차(경동시장), 하나(관수동), SK(대림동), 포스코(파곡동), 롯데(남대문시장) 등 6개는 서울에 사무실을 냈고, 삼성(수원), 신한(부평), LG(파주), 기업은행(안산) 등 4개는 경기도를 거점으로 삼았다.

광주은행이 ‘우리미소금융재단’에 올해 9억원을 출연하는 등 2012년까

지 순차적으로 32억원을 기부할 예정이지만 이는 지주회사인 우리금융그룹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심지어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직접 설립한 지역법인 1호점도 서울 서초구에서 문을 열었다. 광주에서는 오는 31일 서구지점이 미소금융중央재단 지점으로 문을 열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대출 업무는 내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경우 포스코가 광양에 내년에 미소금융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금을 낸 기업이나 은행은 자율적으로 미소금융

재단을 설립한다”며 “(지방분산 관련) 협조를 구했지만 정보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기업·은행이 설립하는 재단을 포함해 50여개 지점을 전국에 설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신용이 7~10등급인 사람들에게 연 4.5%의 금리로 500만~5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기아 쏘울, 칠레 ‘올해의 차’ 선정

기아차는 27일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쏘울이 칠레 유력 일간지 ‘라 페르세라(La Tercera)’에 의해 ‘올해의 차(Best Car 2009)’로 뽑혔다고 27일 밝혔다. 또 기아차 법인은 칠레에서 올해의 자동차 브랜드(Best Maker of the Year 2009)로 선정됐다.

쏘울은 올해의 차 경쟁에서 GM의 준중형 세단 ‘크루즈’와 스즈키의 소형 5도어 세단 ‘쎄레리오’ 등을 제쳤고, 기아차 법인은 프랑스 르노와 경쟁한 끝에 최고 브랜드의 지위를 차지했다.



쏘울은 올해 4월 현지에 출시된 뒤 칠레 최고의 인기 테니스 스타인 페르난도 곤살레스를 등장시킨 광고 <사진> 효과에 힘입어 11월까지 1천 130대가 판매됐다.

/김지기 기자 dok2000@kwangju.co.kr



27일 서울 종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드롭, 달래, 냉이 등 봄나물의 향을 맡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b>1,682.34 (+35.30)</b>
코스닥지수	<b>511.19 (-2.59)</b>
금리(국고채 3년)	<b>4.32% (+0.12)</b>
원·달러 환율	<b>1,175.00원 (-1.20)</b>

※수치는 24일 기준 18일과 비교

코스피지수  
1,682.34 (+35.30)  
코스닥지수  
511.19 (-2.59)  
금리(국고채 3년)  
4.32% (+0.12)  
원·달러 환율  
1,175.00원 (-1.20)

※수치는 24일 기준 18일과 비교

코스피지수  
1,682.34 (+35.30)  
코스닥지수  
511.19 (-2.59)  
금리(국고채 3년)  
4.32% (+0.12)  
원·달러 환율  
1,175.00원 (-1.20)

※수치는 24일 기준 18일과 비교

##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신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신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우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공정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무관련건만을 추천합니다.

국민사업/월 010-7570-7525

국민사업/월 010-7570-7525